

# 후쿠시마의 미래로

~2016년 3월 11일 지사 메시지~

2011년

“취발유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춥다.  
굉장히 힘든 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기를 접하고  
그 고마움을 되새기며 대피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의 생각

“할아버지가 재배한 원목 표고버섯은, 아주 두툼하고 보기 좋다고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산의 원목으로는 더는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카도리의 중학교 1학년의 체험

지진 발생으로부터 1년을 맞이한 날  
미증유의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는 ‘후쿠시마 선언’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되돌리고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후쿠시마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2년 되살아난 소마 노마오이 행사 -

2013년 해상 풍력 발전인 ‘후쿠시마 미래’의 시동, 꽃감 출하 개시 -

2014년 국도 6호의 전면 자유 통행, 피난 지역의 귀환 개시 -

2015년 조반 자동차 도로의 전선 개통, 후타바 미래학원 고등학교 개교  
‘세계 제일의 SAKE’로 인정받은 현산 일본주 -

그날로부터 5년  
후쿠시마의 부흥은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후쿠시마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지금도 10만 명에 가까운 현민 여러분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구·부흥의 상황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풍문과 풍화라는 강한 역풍과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해서 지역 진흥에 대해 배울 것이다.  
지금은 마을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진 재해 전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고 싶다.”  
—나카도리에 대피한 고교 2학년생의 희망

“사람들로 붐비고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후쿠시마 현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흥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하마도리의 초등학교 5학년생의 결의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후쿠시마 현의 자연과 환경을 되찾고 싶다.”  
—나카도리의 중학교 2학년생의 결의

내가 그리는 후쿠시마의 미래.  
고향을 사랑하고 미소가 빛나는 아이들.  
세계에 공헌하는 ‘메이드 인 후쿠시마’의 최첨단 로봇 개발.  
현 내 원전의 전기(雫基) 폐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앞장서는 땅.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는 국내 및 해외의 여러분 -

‘후쿠시마 선언’의 이념에 서서 긍지와 자신감을 되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후쿠시마의 긍지를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강한 결의를 하고 미래의 후쿠시마의 창조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현민 여러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을 계속하면 반드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로 스스로의 한 걸음을 크게 내디뎌  
사랑하는 고향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016년 3월 11일

후쿠시마 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